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김경태 박사
 (한남대학교 부총장/한국학교상담학회장)

「**파동의 인간학**」을 쓴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江本 勝, 1943년생)는 미국에서 “공명자장분석기”와 “마이크로 크리스터” 물을 배운 대인리학 박사이다. 그는 눈(눈)의 결정모양이 제각각 다르다는 사실을 보고 그렇다면 물의 결정도 각각 다른 모양일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을 영하 20℃에서 얼린 후 그 결정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세 컵의 물을 놓고 다른 실험을 했다. ① ‘사랑한다,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들려준 물은 육각형의 결정(육각수)으로 변했고 ② ‘악마, 망할놈’이란 말을 들려준 물은 썩그러지고 험한 모양으로 변했으며 ③ 보이지 않는 곳에 내버려 둔 물은 썩어있었다고 한다.

물에 음악을 들려주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베토벤의 교향곡 「전원」을 들려주면 밝고 상쾌한 곡조에 어울리게 아름답고 잘 정돈된 결정으로 나타났고,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은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느끼게 하는 깊은 곡인데 화려한 결정으로 나타났다. 쇼팽의 「이별의 곡」을 들려주었을 때는 작고 아름다운 결정으로 분리되어 나타났다. 그런데 분노와 반항의 언어로 가득한 헤비메탈곡을 들려주면 결정이 제멋대로 세진채 나타났다고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물에 글씨를 쓴 종이쪽지를 보여줘도 반응이 달랐다고 한다. ‘고맙습니다’와 ‘망할놈’이란 글자를 각각 컵에 붙여놓으면 얼마 후 물의 결정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수는 아름다움 결정을 보이는데 반해 수돗물은 거의 결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염소소독이 아름다운 물의 결정구조를 파괴했기 때문이다. 원래 물이 얼

때 그 분자가 질서정연한 결정모양을 만드는데 이것이 육각형 구조를 이루어 안정된 상태를 보이게 된다. 그러나 자연과 다른 정보가 들어오면 반듯한 육각형 구조를 만들지 못한다고 한다.

맑은 마음의 표현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는 물의 성질을 바꾸고 그 변화가 바로 몸에 나타난다. 건강한 물을 가진 사람은 마음도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에 깃든다’는 말은 진리이다.

인간이 형성되는 최초 단계인 수정란 때는 몸의 99%가 물이며 막 태어났을 때는 90%, 완전히 성장하면 70%, 죽을 때는 약 50%의 비율로 된다는 것이다. 우리 몸 속의 이 물이 대화와 상황에 따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마음을 사랑과 감사로 가득 채우면 사랑해야 하는 것, 감사해야 할 멋진 일들이 계속 나타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원한이나 불만 또는 슬픔 같은 파동을 발생시키면 현충터 원한을 품어야 할 상황이나 슬픔이 가증되는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사랑하고 자기 형편에 감사할 때는(살전 5:16-18) 일의 능률도 올라가게 된다. 사랑으로 인해 조건과 상황이 바뀌게 되기 때문이다.

대개 훌륭한 업적을 쌓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주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남을 위해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치매환자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자연현상과 공명할 수 있고 우주의 모든

것과 대화할 수 있으며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욕망만 채우려들면 자연과의 조화를 파괴하고, 파괴 에너지를 계속 뿜어내어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들은 자기생활의 편리와 사치스런 욕망을 추구한 결과, 지구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이제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의식을 전환하고 자연과 공명(공존)하면서 지구를 보다 평안한 상황으로 회복해야 한다(창 1:28. "정복"의 뜻은 창조목적대로 질서 있게 관리하라는 뜻이다).

대자연 속에는 원래 사랑과 감사라는 진동만 존재했다고 한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 나무나 풀은 서로를 존중하며 공생한다.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사자는 배가 고플 때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나무아래에 있는 풀이 햇빛이 닿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먹이를 독점하려는 동물도 없다. 오직 인간만이 욕심의 노예가 되어 필요 이상으로 빼앗고 저장하며, 서로 속이면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2011년에는 연간 20억t의 물이 부족할 것이라는 데 이제 물을 연구해야 할 때이다.

물에 경의를 표하자. 물이 매우 섬세한 에너지 반응을 한다는 것도 이해하자. 그동안 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함부로 다루어왔음을 반성하자.

스위스에서 30년 간 강물을 연구해온 전 취리히공대 교수인 조안 데이비스 여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몇십 년 동안 흙을 통과하며 여러 가지 미네랄


로부터 정보를 얻은 지하수가 된 것을 현명한 물(wise water), 방금 내린 빗물을 젊은 물(juvenile water)이라 이름지었다.

또한 일본 쓰쿠바대학 명예교수인 무라카미 가즈오 씨는 인간이 지니고있는 "레닌"이라는 효소 유전자 암호를 해독한 세계적인 학자인데, 그는 생명이 갖고 있는 유전자정보를 읽으면 읽을수록 미세한 공간에 이렇게 치밀한 정보를 적어 넣은 어떤 존재(하나님)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그는 이 위대한 존재를 "Something great"이라고 불렀으나 우리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분자는 수소(H)원자 둘과 산소(O)원자 하나로 구성되어있다(H₂O). 인간관계도 감사 둘과 사랑 하나의 비율로 구성하면 최상이 될 것이다. 마치 귀는 둘, 입은 하나인 것과 같다.

사랑(능동적 삶)이 중요하다. 그러나 감사(수동적 삶)는 더욱 중요하다. 가지려는 마음보다 배풀려는 마음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 숲을 베고 사막과 싸우면서 문명을 이루어왔다. 이 투쟁과 정복의 역사를 통해 너무 많은 것들을 희생시켰다.

이제부터는 감사 쪽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환경에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우리를 길러준 물과 공기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 몸 속의 70%를 이루고 있는 물도 깨끗하고 빛나는 옥각수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한 몸과 건전한 정신 및 거룩한 영혼(살전 5:16-23)이 되어 장수할 수 있을 것이다. 

WATER.....